

## 베트남 2017: 경제, 정치, 대외관계의 현황과 전망

채수홍\* · 이한우\*\*

### <국문초록>

이 글은 최근 베트남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자본주의화를 이상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작성된 각종 보고서와 논문을 활용하여 2017년 베트남 경제의 특징적 변화를 소개한다. 둘째, 베트남의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포괄하면서 베트남 경제의 최근 변화와 위기를 중장기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하고, 진단하고자 한다. 셋째, 최근 대두된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놓고 공산당 내부에서 벌이고 있는 정치과정의 양상과 이로 인한 권력관계의 변화를 추적한다. 넷째, 이상에서 논의한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외관계의 환경과 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대응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25주년을 맞이한 한국-베트남 관계의 의미에 대한 평가도 간략하게나마 시도해보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chae4811@snu.ac.kr,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한인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중인 연구입(AKS-2016-SRK-1230004).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asia@sogang.ac.kr,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NRF-2008-362-B00018).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대중이 개혁개방정책 이후 일어나고 있는 체제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성찰해보고자 한다.

2017년은 베트남인에게 자본주의를 향해 순항하는 경제, 이로 인한 인민의 욕구의 분출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통제, 그리고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대외관계의 불확실성과 이에 대한 다각적 대응 등으로 기억될 만한 해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베트남이 시장경제 모델을 채택하면서 지속적으로 경험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베트남의 인민에게 동의를 얻어내며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양산하게 될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빈부격차의 확대, 부패와 권력의 독점,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양산이 지속되는 한 진정한 의미의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정치경제적 변화를 위한 개발과 산업화가 환경, 건강,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한 동의 대신 불만의 축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17년 한 해에 이룬 수치상의 경제성장, 표면적인 정치안정, 대외관계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향후 얼마나 지속가능한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베트남 2017,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제관계, 동의와 저항, 사회주의, 개혁, 경제성장, 발전

##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2017년을 중심으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베트남의 경제, 정치, 대외관계의 상황과 특징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성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베트남은 자본주의로 점차 이행하고 있는 하부구조와 공산당을 중심으로, 적어도 지배적인 정치이념만 두고 볼 때,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상부구조가 “불편한” 동거를 “무난하게”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의 여러 현상을 평가하는 작업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이념과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베트남 사회의 변화를 평가하고 전망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단순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Fforde 2016; Kolko 1997).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글은 최근 베트남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자본주의화를 이상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작성된 각종 보고서와 논문을 활용하여 2017년 베트남 경제의 성과와 특징적 변화를 소개한다. 둘째, 베트남의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보는 서로 다른 시선을 포괄하면서 베트남 경제의 최근 변화와 위기를 중장기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하고, 진단하고자 한다. 셋째, 최근 대두된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놓고 공산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과정의 양상과 이로 인한 권력관계의 변화를 추적한다. 넷째, 이상에서 논의한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외관계의 환경과 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대응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25주년을 맞이한 한국-베트남의 관계의 의미에 대한 평가도 간략하게나마 시도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대중이 개혁개방정책 이후 일어나고 있는 체

제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성찰해보고자 한다.

## 2. 2017년 경제지표의 긍정적 신호와 토대의 견실성

베트남 경제는 2017년 한 해 동안 “야심찬 목표를 상회하는”(Minh Nga 2017: 1)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다.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경제성장률이 공식목표인 6.7%를 상회하는 6.8%를 기록했다. 전반기만 해도 원유 등 광물가격의 하락으로 5.7%대의 성적을 거두며 전망을 어렵게 했지만 최근 10년 내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는 반전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성과의 일등공신은 베트남 정부의 기업 친화적 재정정책이었다. 원래 부가가치세를 10%에서 12%로 올리는 등 일련의 세금인상정책을 계획했지만 9월에 이를 백지화하고 대출 이자율도 0.25% 인하하여 6.25%까지 낮추었다. 그 결과 2017년 신규 등록 회사가 12만 7천여 개가 생겨나는 신기록을 세웠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반기에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Minh Nga 2017: 2).

베트남 경제가 순항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제성장률 이외의 여러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2017년 베트남 사회-경제 발전계획 결의 (Resolution No. 23/2016/QH 14)’에서 설정한 ‘외국인직접투자(이하 FDI)’ 유치, 수출증가율(6-7%),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4%), 환율 등의 목표를 초과 또는 근사치에 가깝게 달성했다.<sup>1)</sup> 먼저, 베트남 경제의 젖줄 역할을 하는 FDI의 신규 유입은 1,183건으로 2017년 전반기 기준 전년 대비 54.8% 증가한 192억 달러를 기록했다(tradingeconomics.com

---

1) 2017년 1월 9일 현재 경제성장률 이외의 공식적 통계는 2017년 전반기까지 접근 가능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17년 전반기까지 만의 통계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2017년 후반기에 베트남 경제가 전반기보다 좋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베트남 경제의 양호한 성적을 추론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World Bank 2017: 8).

참조). 이러한 FDI 유입 증가는 GDP 성장, 무역수지 적자의 감소, 그리고 정부의 외환관리 능력의 증대 등 긍정적 효과를 낳으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다(World Bank 2017: 8).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무역수지는 국제무역기구(이하 WTO) 가입 직후인 2008년 적자가 175억 달러까지 확대되었다가 2012년 흑자로 돌아선 후 균형지점 근처에서 맴돌고 있다. 2017년 초에는 전년도에 비해 흑자폭이 줄어들었지만 무역수지는 한 해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소비자물가도 2016년의 2.66%에 비하면 상승했지만 내수가 팽창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전반기에 달성한 4.15%는 적절해 보인다. 특히 주요 품목의 물가가 2%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높이 살만하다(World Bank 2017: 9). 이와 함께 실질적 환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명목상 환율은 중앙은행이 외환 변동성을 적극 억제하는 방어정책을 펼친 덕택에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유가(油價) 하락과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탈퇴 및 보호무역의 강화라는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한 해 동안 이처럼 경제가 순항했던 것은 베트남 경제의 세 가지 근간(fundamental)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외국자본의 제조업 투자와 수출이 베트남 경제의 성장 동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세계경제, 특히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기가 양호한 것이 외국자본 유입과 수출 증가 추세를 지속시키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의 대미 무역흑자에 대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멕시코 등과 비교할 때 통상압력이 상대적으로 거세지 않았다는 점과 중국으로부터 전자 부문을 필두로 노동집약적 기업이 이전해오고 있는 현상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제반 요인이 베트남에서 외자에 의한 제조업 중심의 수출을 공고

하게 다지고 있는 것이다. 외자에 의한 수출 못지않게 베트남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내수시장이다. 커니(A.T. Kearney)의 '2017 글로벌유통발전지수(GRDI)'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소매시장은 세계에서 6번째로 유망하며, 실제로 2017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베트남의 전년 동기 대비 재화 및 서비스 판매액은 10.2%나 증가하였다(이주현 2017: 3). 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도시화와 중산층의 비율이 합축하고 있듯이 소비여력이 있는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에 기인한 것이다.<sup>2)</sup> 2017년 6.8%의 GDP 성장률 가운데 건설과 수출 중심의 제조업 분야가 2.77% 공헌한 반면, 이를 능가하는 2.87%가 내수중심의 서비스 분야의 성장에 힘입은 것이었다(Minh Nga 2017: 2).

이와 더불어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은 최근 '공적 원조(이하 ODA)'에서 '민관합작투자사업(이하 PPP)'의 형태로 점차 변화해가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형투자이다. 현재 PPP 형식의 투자만 놓고 보아도 호찌민시에만 200억 달러, 하노이의 교통 부문에만 150억 달러가 투입되어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이주현 2017: 3-4). 순수민간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과 함께 사회기반시설의 구축은 베트남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베트남 건설시장의 규모는 주택건설에 약 70억 달러,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약 3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미 2016년에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김은희 · 한경준 2016: 29-30).

마지막으로, 베트남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큰 장점은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임금 수준이다. 베트남은 향후 몇 년 안에 1억을 돌파

2) 현대경제연구원(2017)의 연구보고서는 베트남의 중산층 인구는 2009년 1,680만 명에서 2020년 5,58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15년 현재 70%가 농촌에 살고 있지만 2030년까지 도시화의 비율이 43.3%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중산층의 의미와 예측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 보고서가 예견하고 있는 것처럼 도시 중산층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다.

할 것이 확실한 세계 14위의 인구 대국이며, 무엇보다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 현재 약 6천 5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037년에 이르면 이 수치가 7,071만 명까지 늘어나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은미 2017: 3).<sup>3)</sup> 이처럼 향후 20년간 생산가능인구의 증가가 계속된다는 점과 함께 개방 이후 현재까지 베트남의 최저임금 수준이 미얀마와 캄보디아보다는 높지만 제조업 경쟁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보다 낮은 것은 노동집약적 제조업에게는 매력적인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하노이와 호찌민시와 같은 1지역의 경우에도, 2018년 인상분을 고려해도, 아직 175 달러에 불과하다. 제조업의 평균임금도 237 달러로 향후 몇 년간은 임금상승의 압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신선영 2017a).

베트남 경제가 2017년 예상보다 양호한 지표를 달성한 것은 이처럼 우호적인 거시경제 환경에 힘입은 원활한 외자유입과 제조업의 수출, 서비스와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한 내수시장의 급성장, 그리고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노동시장의 유지 등 경제적 토대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세계자본주의 시장이 요구하는 제반 개혁과제를 놓고 고심어린 노력을 하고 있다.

3) 다른 자료(신선영 2017a)에 의하면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2017년 1분기 '노동 가능 인구'는 5451만 명이며 이 가운데 42%가 임금노동자로 되어 있다. 사실 생산가능인구와 노동가능인구가 같은 용어로 15세에서 64세의 인구를 지칭하는 것이다. 필자로서는 왜 양 자료의 생산가능인구가 1천만 명 이상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없다. 아마 베트남 정부가 사용하는 '노동 가능인구'는 생산가능인구보다 좁은 의미로 실제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를 합산 것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 3. 베트남 경제의 성장과 위기에 대한 두 가지 시선

도이머이(Doi Moi) 이후 베트남 경제는 사회주의 시절의 빈곤과 생계경제에서 벗어나 국부를 축적하면서 산업화된 경제로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베트남 경제의 2017년 지표는 이러한 이행과정이 아직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표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행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하는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한 여러 형태의 개혁적 조치를 수행할 필요가 있기 마련이다.

세계자본주의가 일관되게 베트남에 주문하고 있는 것은 시장의 개방과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제도의 개혁이다. 베트남 경제를 평가하는 최근의 보고서들은 거의 한 목소리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나 금융시장의 휘발성과 같은 대외적 요인과 함께 베트남의 몇 가지 내적 요인을 위기의 불씨로 지적하고 있다(Asian Development Bank 2017; World Bank 2017 참조). 이를 요약하면, 베트남이 “성장에 따른 구조적 병목현상”(World Bank 2017: 9)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의 적자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악화, 급격한 신용 증가의 부작용, 시장 환경의 미비로 인한 투자 감소의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World Bank 2017: 27-38). 국제통화기금(이하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대표적인 금융정책 기관들은 이러한 위기에 대한 가장 시급하고 적절한 처방으로 공히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시장개방을 위한 자유화 조치를 권유하고 있다.

베트남 경제의 걸림돌인 부패하고 무능한 국영기업을 개혁해야 한다는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는 나름의 통계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베트남 경제는 무역부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FDI 기업 덕분에 전체 무역수지에서 GDP의 12%에 해당하는 흑자를 내고 있지만 국내부문에서 GDP의 8%에 해당하는 적자를 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5%는 공공부채로 인한 것이다(World Bank 2017: 22; Coxhead 2017: 161). 실제로 2015년 말에 국가의 공공부채는 국가가 정한 법정 상한선인 GDP의 65%에 거의 육박하는 62.2%를 기록했다. 공기업의 부채가 2016년에 이미 약 3240억 달러에 이르러 GDP 대비 158%를 기록하여 이러한 공공부채 상승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분명하다(이주현 2017:4). 혹자는 공기업과 중앙은행의 부채를 합하면 국가의 공공부채가 이미 GDP를 상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공공부채 가운데 공무원의 월급이나 연금 등 불가피한 지출도 있지만, 부채상승의 주범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유산으로서 국영기업이 지목되고 있다. 베트남 국영기업은 과도한 지출과 비효율적 경영으로 악성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비호 아래 상대적으로 쉽게 대출을 받고 있고 부패하여 국가재정의 적자와 금융부문 부실화의 주범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그 결과 외국평가기관은 물론이고 베트남의 정부 관료와 언론까지 국영기업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는 2010년대 초반부터 세계시장의 “올바른” 요구에 부응하여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Dun & Bradstreet 2015: 31-36). 2015년에는 법을 개정하여 일부 주요기업을 제외한 국영기업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폐지하였다. 이후 2016년의 1월에서 5월 사이에만 120개 국영기업을 매각하여 1억 2863만 달러의 수입을 거두기도 하였다(윤보나 2016: 1).

하지만 콕스헤드(Coxhead 2017: 161)가 지적하고 있듯이 ‘국가자본투자공사(State Capital Investment Corporation)’가 주도하는 민영화의 실상은 외부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국영기업이 주식의 일부만을 내놓거나,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다른 국영기업에서 사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

의 주요 국영기업의 경우 외국자본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태가 전개되고 있으며 외국평가기관도 베트남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이런 일반적 시선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면서 다른 시선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일군의 학자들도 있다. 예를 들어, 포르데(Fforde 2016)는 일련의 논문을 통해 베트남 정치경제의 구조적 성격에 대한 공식적 견해가 가진 편견과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그는 베트남의 각종 통계를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산업화를 통한 근대화라는 명제가 실제인지는 불명확하며, 오히려 서비스 부문을 통해 근대적 경제발전이 추동되고 있다는 사실만이 명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베트남 정부가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라는 모토를 내세우고 있지만 규모가 큰 국영기업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대하게 공헌하고 있는 바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시각을 취하면 국영기업을 부채의 주범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수많은 베트남 중소기업과의 연계성 속에서 그 역할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핀커스(Pincus 2015)도 문제의 본질은 국가가 상업화되고 파편화되어 산하 기관이나 기업을 제대로 훈육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데 있으며 오히려 이것이 베트남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반된 시각은 베트남이 “사회주의 지향의 자본주의 경제”를 선택함으로써 발생해온 여러 혼동과 모순에서 기인한다. 베트남 정부의 경제성장을 위한 일련의 개혁조치들은 신자유주의를 내면화하면서 자본주의로의 통합을 촉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회주의로의 진정한 이행을 단계적으로 성취하고 있는 과정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선행되어야 어떤 것을 위기와 상실로, 어떤 것을 기회와 성취로 평가할 지가 판가름 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판단이 먼저 서

야 베트남이 걷고 있는 길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위기와 기회를 제공할지에 대하여 공식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17년 베트남의 경제실적을 부문별로 나누어 평가할 때도 서로 상반된 시각에서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베트남의 절대적 부의 증가와 상대적인 불평등의 심화의 공존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각종 FTA로 세계시장에 통합되고 FDI가 안정적으로 유입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반면, 동시에 “외자기업에 의한 수출이 2016년도부터 70%를 넘어선 현상”(Asian Development Bank 2016: 163)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국영기업의 역할을 논할 때 공공부채의 증가를 먼저 염려해야 하는가 아니면 기간산업의 역할을 더 중요시해야 하는가? 베트남의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을 빈곤탈출과 고용증가의 관점에서 논해야 하는가 아니면 산업구조 고도화의 한계와 연결시켜 비판적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베트남이 현 시점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자랑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직면할 문제를 직시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언젠가 베트남 사회가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발전전략의 모순되고 양가적인 성격을 마주하게 되면 치열한 논쟁과 갈등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 4. 반부패운동과 권력경쟁의 정치지형

2017년 베트남의 정치는 반부패운동과 결부된 권력경쟁으로 점철되었다. 가장 극적인 사건은 2017년 12월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호찌민시 당위원회 비서였던 딘라탕(Dinh La Thang)을 체포하여 기소한 것이었다(VnExpress 8 Dec. 2017).<sup>4)</sup> 그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 페트로 베트남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오션뱅크(Ocean Bank) 투자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8천억 동(3,500만 달러) 손실을 초래하고, 직위 남용, 횡령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VnExpress 20 Dec. 2017). 단라탕은 2016년 1월 제12차 공산당대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곧 호찌민시 당위원회 비서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는 2017년 5월에 정치국 위원 및 호찌민시 당위원회 비서직에서 축출되었고,<sup>4)</sup>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으며, 재판에 회부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 사건으로 단라탕 외에도 페트로 베트남 관련자 20명도 함께 기소되었다. 이외에도 근래에 다수의 전직 관료들이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러한 부패척결운동은 사회의 건전성을 회복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급속한 개혁을 지향하는 그룹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회주의 체제의 고수를 주창하며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정치권 인사들도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부패척결운동의 이면에는 정치집단 간의 권력 경쟁이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현 권력경쟁의 시작은 2012년경 응우옌뎐중(Nguyen Tan Dung) 수상을 중심으로 한 그룹과 응우옌푸쑹(Nguyen Phu Trong) 공산당 총비서와 쩌엥뎐상(Truong Tan Sang)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세력의 분화에 토대를 두고 있다. 중(Dung)이 수상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국영기업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였고 “상호

4)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 임기 중 축출되는 일은 베트남에서 매우 드문 일이다. 응우옌 반린(Nguyen Van Linh)이 1976년 12월 정치국 위원에 선임된 후 1981년 ‘사임’하였다가 1985년 6월에 정치국 위원으로 복귀한 적이 있다. 1990년 쩌쑤언바익(Tran Xuan Bach), 1996년 응우옌하판(Nguyen Ha Phan)은 공산당으로부터 축출되었다(BBC Vietnamese 27 thang 4 2017).

5) 단라탕이 정치국에서 축출되며, 제12기 정치국 위원은 19명에서 18명으로 감소했다. 호찌민시 당위원회 비서직은 응우옌티엔년(Nguyen Thien Nhan) 정치국 위원이 승계했다.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를 발전시켰다. 특히 경제부문에서 그의 과도한 권력행사와 전횡은 공산당 고위지도자들에게 경계심을 갖게 했다.

이에 응우옌푸쑹을 선두로 한 보수그룹은 중 수상의 견책을 도모하였다. 먼저 총비서는 이 안건을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 부쳤고 다수의 위원이 당시 ‘동지 X’로 불렸던 중 수상의 견책을 결의하였다. 하지만 중앙위원회에서 위원 다수가 중 수상의 견책을 반대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보수그룹이 국회에서 중 수상의 탄핵을 시도하였으나 이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이후 보수그룹은 정부의 권력자들을 견제하고자 국회에서 신임투표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2013년 6월 국회에서 국가 고위인사에 대한 제1차 신임투표가 실시되었을 때 응우옌편중 수상은 중하위 순위에 처했다. 그러나 2014년 11월 제2차 신임투표에서는 그가 다시 높은 신임을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다.<sup>6)</sup> 그에 대한 지지도 상승은 경제실적과 함께 싱가포르 상그릴라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 발언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 정치권에서는 응우옌편중이 “노련한” 정치가라는 평가가 회자되었다.

당초 공산당과 정부는 반부패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회를 정부 산하에 두고 숙정작업을 진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숙정대상인 중 수상 그룹이 정부를 장악하고 있어 이 계획이 의도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2012년 12월 공산당은 반부패 숙정작업을 정부로부터 공산당 중앙위원회로 이관하여 중앙내정위원회를 신설하였고, 동시에 중앙경제위원회를 복구하여 공산당의 경제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6) 신임투표는 ‘높은 신임’, ‘신임’, ‘낮은 신임’ 중 선택하게 되어 있다. ‘높은 신임’을 기준으로 보면, 응우옌편중 수상은 제1차 신임투표에서 47명 중 26위, 제2차 신임투표에서 50명 중 12위를 차지하였다(Nguyen Canh Binh 2013; *Thanhmien News* 15 Nov. 2014).

이와 더불어, 주도권을 장악한 보수그룹은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인물들을 주요한 자리에 앉히려 시도하였다. 그들은 응우옌바타인(Nguyen Ba Thanh) 당시 다낭(Da Nang)시 당위원회 비서를 중앙내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 숙정 작업에 착수하려 하였으며, 국가회계감사원장, 재정부장관 등을 역임한 브엉딘후에(Vuong Dinh Hue)를 중앙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보수그룹은 이 두 명을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시키고자 하였으나 끝내 이를 성사시키지 못했고, 대신 응우옌티엔년(Nguyen Thien Nhan) 부수상, 응우옌티킴응언(Nguyen Thi Kim Ngan) 국회부주석이 2013년 5월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하였다. 당시 중앙위원회 위원이던 응우옌바타인이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하자 보수그룹은 숙정의 동력을 쥐지 못했고, 이후 2015년 2월 그가 ‘질병’으로 사망함에 따라 공산당에 의한 정부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

이후 2016년 1월 제12차 공산당대회에서 당시 응우옌푸쑹 공산당 총비서와 응웬떤중 수상이 차기 총비서직을 두고 경쟁하였다. 언론은 이 권력경쟁을 친중파와 친미파의 구도로 분석하곤 하였으며(홍인표 2016), 응우옌푸쑹을 친중파의 수장으로, 응우옌떤중을 친미파의 수장으로 인식했다. 개혁의 속도와 관련된 성향으로 보면, 친중파가 상대적으로 점진적 개혁, 친미파가 상대적으로 급속한 개혁을 지지하는 편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친중파와 친미파 구분은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다. 다만 응우옌푸쑹이 상대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려는 성향을 더 가지고 있어 친중적일 수밖에 없는 점은 분명하다.<sup>7)</sup>

최근의 권력경쟁은 2016년 1월에 개최된 제12차 공산당대회에서

7) 근래 중국과 베트남 간 남중국해에서의 갈등 격화로 베트남 국민들의 반중국적 정서가 강화되었고, 상대적으로 더 친중적인 응우옌푸쑹에 대한 비판도 강화되었다.

결국 응우옌푸쑹이 공산당 총비서에 재임됨으로써 보수그룹이 승리하는 것으로 마감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 언론은 응우옌푸쑹이 연료하여 1~2년간 총비서직을 맡은 후 회기 중간 공산당대회를 개최하여 신임 총비서를 선출하리라고 추측하는 보도를 냈지만, 2년이 지난 2017년 말에도 총비서 재선출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응우옌푸쑹이 권력기반 강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최고위 지도자들의 권력구도를 보자면, 응우옌푸쑹 총비서가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친중국적이고, 쩌다이꾸앙(Tran Dai Quang) 국가주석도 이에 동조하는 듯하다. 이와 비교할 때 응우옌쑤언푹(Nguyen Xuan Phuc) 수상은 상대적으로 급속한 개혁을 추구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응우옌티낌응언 국회주석(국회의장)은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렇듯 현 권력구도는 최고위 지도자 4인방 중 점진적 개혁 또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지도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형세다. 이들 핵심적인 네 명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정치국 위원들의 사회주의 체제 및 개혁에 대한 성향은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애매하다.

분명한 것은 최근 기소된 딘라탕이 전임 수상 응우옌떤중 그룹의 핵심적 일원이었기에 숙정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사실이다. 딘라탕이 북부 출신이면서 호찌민시 당위원회 비서를 담당할 초기에 그의 개혁 드라이브는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언론 플레이는 그의 실각으로 오래가지 못하고 말았다.

공산당 총비서 응우옌푸쑹이 앞장선 반부패운동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나는 개혁과정에서 증가한 부패가 공산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켜 왔기에 이를 바로 잡으려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응우옌떤중이 수상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경제부문에 대한 권력을 제어하는 것이었다. 반부패운동

은 행정부와 국영기업 사이의 정경유착이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관련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는 믿음에 기초해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세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집단이익(lo i ch nhom)’이라는 부정적 용어로 회자된 바 있다.

베트남 국민들은 반부패운동에는 대체로 호응하고 있다. 하지만 반부패운동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응우옌푸쑹 총비서의 친중적 자세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인은 중국에 구원을 갖고 있어, 베트남에서 중국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를 부인하지 않는 인사들에게도 응우옌푸쑹에 대한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이처럼 여느 사회주의 국가와 유사하게 베트남에서도 반부패운동은 권력경쟁과 밀접히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다. 2017년 베트남의 정치권을 흔든 부패척결이라는 이슈는 이처럼 보수와 개혁, 친중과 친미 등이 얽혀 만들어진 당파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정치과정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 5. 급변하는 대외관계에 대한 베트남의 전략과 대응

베트남의 정치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대외관계에서 핵심은 중국과의 갈등과 협력의 정도이다. 베트남에게 중국은 통상부문에서 미국에 이어 2위 수출국이며, 전체의 1/4을 상회하는 1위 수입국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동시에 양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을 벌였을 뿐 아니라 현재도 육상과 해상에서 국경을 놓고 첨예한 분쟁을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이 지난 30년 동안 외교다변화를 추진한 가장 큰 배경도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켜야하는 이중의 과제 때문이었다(Chapman 2017; Thayer



2015).

베트남이 중국과의 대외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과 베트남은 수교 직후인 1995년 약 4억 5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무역규모를 2016년에는 520억 달러로 증가시킬 정도로 경제적인 교류를 급속히 확대했을 뿐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상영토분쟁 등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안보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Albert 2017).

베트남에게 2017년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중심축만을 놓고 볼 때 대외관계에서 과도기적 불확실성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 그 동안 남중국해의 석유시추를 매개로 첨예한 분쟁에 휩싸였던 중국과는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의 결정<sup>8)</sup>을 계기로 타협점을 모색하며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다. 특히 2017년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이하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베트남의 응우옌푸쫑 공산당 총비서를 만나 무역 교류의 확대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공동개발을 위하여 협력한다고 합의하였다(윤지원 2017). 또한 이 합의를 토대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의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과 ‘행동준칙(COC)’을 만들기 위한 중국과 아세안의 협상을 이행하자는 데까지 논의를 진전시켰다. 이로써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악화되어 온 베트남과 중국의 대립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긴 하지만, 상당히 완화되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와 경제 및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친밀함을 과시했던 미국과의 관계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상당한 변화를 겪으며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태이다. 오바마 대통

8) 국제중재재판소(a world arbitration court)는 2016년 6월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350만 평방미터의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령이 인권문제 등을 중시하는 “가치 중심의 접근”을 하면서 경제적, 군사적 협력으로 당근을 제시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면서 베트남을 불공정 무역 국가로 간주하면서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Huong Le Thu 2017: 1-2). 특히 베트남의 우려를 자아낸 것은 그 동안 기대하고 준비했던 TPP에서 핵심국가였던 미국이 탈퇴한 것이다. 베트남 외교부가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읽을 수 있듯이, TPP를 활용하여 외국투자의 유치, 수출 진작, 산업구조 및 제도의 개혁 등을 이루려했던 베트남으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적 변화에 대응하여 베트남 정부는 응우옌쑤언푹 수상이 2017년 5월에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양국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만남에서 미국은 예상대로 32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베트남은 미국 기업과의 계약을 추진하고 미국 내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윤보나 2017). 약소국인 베트남이 경제와 안보에서 당근을 제공받던 처지에서 강대국인 미국에 오히려 당근을 제공하는 진풍경을 연출한 것이다(Huong Le Thu 2017: 2). 이에 상응하여 미국은 베트남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쩡(Trong) 공산당 총비서와 폭(Phuc) 수상을 만나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하여 공조하고 미국이 중국과 베트남의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해주었다.<sup>9)</sup>

베트남은 이와 같은 일련의 불확실한 상황의 전개를 경험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을 활용했던 기존의 외교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베트남은 양대 강국과 적당

9) 그러나, 2017년 APEC 회의에서 취한 미국의 태도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 이외 주변국들의 이익에 부합하기에는 미흡하였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한 거리를 두고 실리외교를 펼치고 있다. 한편으로는 아세안이 기존의 한국, 중국, 일본과의 FTA를 통합하기 위해 제안하고, 중국이 주축이 되어 TPP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신선영 2017b). 다른 한편으로, TPP 가입 예정 국가들은 미국 중심으로 추진되다가 미국이 탈퇴한 TPP를 ‘포괄적·점진적(Comprehensive and Progressive)’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CPTPP로 개명하여 계속 추진하기로 2017년 APEC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였다. 미국과 중국이 중심이었던 양 협정을 다른 국가와의 공조 하에 모두 진행함으로써 명분과 이익을 모두 획득하려는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 이외 국가와의 경제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외교통상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을 활용하여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Parameswaran 2017), 인도와는 1억 달러의 군사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4대의 해양 순찰함을 구입하는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Pant 2017). 이밖에도 2015년에 출범한 아세안 경제공동체와 2016년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협력기구(EAEU)와 맺은 FTA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외교와 통상 분야에서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베트남의 외교·통상 부문의 다변화 전략에서 한국도 반드시 언급이 필요한 핵심적인 협력대상국이다. 2017년에 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로서 정치와 외교 관계에서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어느 나라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의 무역규모는 지난 10년간에만 6배 이상 증가하여 2017년 639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은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ODA를 많이 제공한 국가로 자리매김했다(정선인 2017: 60). 베트남은 한국에게도 중국, 미

국, 일본에 이어 4대 수출국이며, 아세안 국가 가운데 한국의 최대 수입국이 되었다(현대경제연구원 2017).

양국의 경제적 관계가 이처럼 긴밀해짐에 따라 인적 교류를 통한 사회문화적 소통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인은 2017년 현재 약 15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채수홍 2017: 130). 수출입 은행이 제공하는 베트남 국가정보에 의하면 2016년 11월 현재 약 4,244개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의류·봉제·신발, 200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과 유통, 2000년대 후반 이후 삼성, LG 등 전자산업이 대거 현지로 이전함에 따라 현지에 한인사회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현지에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3천여 한-베 가정도 점차 그 수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채수홍 2017: 162).

이에 상응하여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인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6년을 기점으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국제결혼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21,709명 가운데 베트남 출신이 27.9%로 26.7%를 차지한 중국인을 처음으로 넘어섰다(연합뉴스 2017. 12. 4.).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한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21%가 베트남 출신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더하여 2017년 10월 현재 약 48,357명의 베트남인이 취업비자를 받았고, 유학생도 24,548명에 이른다. 이처럼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인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인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양국관계의 발전을 기념하여 2017년 한 해 동안 베트남 현지에서는 ‘수교 25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열렸다. 4월에는 하노이에서 ‘한-베 수교 25주년 기념 한국인의 날’ 행사가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알차게 진행되었고, 11월에는 ‘호찌민-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호찌민시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또한 양국관계의 발전을 기념하기 위하여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응우옌쑤언푹 수

상과 G20 정상회담이 열린 함부르크에서 만나 교역증진, 인프라 건설 협력,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11월에는 APEC 기간 동안 다낭에서 찐다이꾸앙 국가주석을 만나 “2020년까지 양국의 교역을 1천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이처럼 2017년은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한 해였다.

## 6. 결론: 변화에 대한 동의, 저항 그리고 통제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온라인 신문 베트남 익스프레스는 2017년 베트남의 5대 뉴스로 APEC 개최, 반부패운동, 하노이 외곽 토지 분규, 사회관계망에서 “악성” 정보 차단, 태풍과 침수 피해를 꼽았다. 반면 베트남어판 BBC는 7대 뉴스 중, 김정남 암살에 베트남 여성 관여, 단라당 공산당 정치국 위원 기소, 블로거 매남(Me Nam)의 재판, 스페인 기업인 렵솔(Repsol)의 남중국해 베트남 해역에서 천연가스 굴착 중단, APEC 개최 등을 상위로 선정했다. 이처럼 2017년 베트남은 국내적으로 반부패운동, 단라당의 체포, 사회관계망에 대한 단속 등 정치적 통제 강화가 이슈가 되었으며 국제적으로는 APEC과 남중국해 갈등과 같은 대외관계의 변화가 관심을 끌었다.

이 글은 2017년 관심을 끌었던 이러한 뉴스를 염두에 두고, 경제, 정치, 대외관계에서 일어난 중요한 현상과 변화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그 함의를 찾아내고자 했다. 요약하면, 2017년은 베트남인에게 자본주의를 향해 순항하는 경제, 이로 인한 국민들의 욕구의 분출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통제, 그리고 중국-미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대외관계의 불확실성과 이에 대한 다각적 대응 등으로 기억될 만한 해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주의를 포

방하고 있는 베트남이 시장경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험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베트남인은 개혁개방정책 초기만 해도 자신과 이웃이 빈곤에서 탈출해서 경제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기대감이 정책에 대한 동의와 통제에 대한 순응의 토대를 제공했다(Nguyen Khac Vien and Huu Ngoc 1998). 하지만 자본주의적 성장과 이와 연계된 세계경제로의 통합은 이들에게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베트남인이 이제 더 이상 생계경제와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시장경제의 폐해에 대하여 불만을 축적해나고 이를 표출할 방법을 찾고 있다(이한우·채수홍 2017: 181). 아직 국가에 대항할 만한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이익추구, 환경, 인간안보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저항의 징후가 점차 현저해지고 있다.

예들 들어, 2016년 4월 대만계 포모사(Formosa)의 하띤(Ha Tinh) 철강회사의 폐수 방류로 대규모 해양 오염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천주교 빈(Vinh) 교구의 사제와 신도들은 최근까지도 이를 이슈로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하띤 철강은 5억 달러를 배상금으로 제공했지만, 하띤과 인접한 꾸앙빈(Quang Binh), 꾸앙찌(Quang Tri), 트어티엔-후에(Thua Thien - Hue) 성의 주민에 한정하여 배상하고 그 절차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사례는 개발과 산업화에 대한 불만이 환경문제를 매개로 국민을 각성시키고 저항의 기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런 점을 의식하여 공산당과 행정부가 경제성장의 부정적인 효과가 사회적 저항으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중남부 지역의 닌투언(Ninh Thuan)성에

철강공장을 건설하려던 호아쎌(Hoa Sen)그룹의 계획을 중단시키고 사업성과 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관할 지방정부에 지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김문성 2017a; 정재영 2018).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주민이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경우 격렬하게 저항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개발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토지수용을 둘러싼 분규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전과 달리 정부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토지를 수용하거나 전유하려 할 때 순응하는 주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군부가 소유한 거대 통신회사 비엠텔(Viettel)이 하노이 인근에 소유한 토지를 개발하려는 과정에서 주민과 분쟁이 일어난 바 있으며 결국 하노이 시장까지 중재에 나서 주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남부 띠엔장(Tien Giang) 성, 까이러이(Cai Lay) 지역에서는 민자 도로의 요금징수 문제로 주민과의 분쟁이 발생하자 수상이 직접 나서 통행료 징수를 잠정 중단시키기도 하였다(민영규 2017). 이는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이익의 침해처럼 주민에게 축적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명분이 제공되면 폭발성이 있다는 점을 정부가 심각하게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베트남에서 공산당과 정부의 통제와 지배력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격렬하게 도전하는 저항은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이는 아직도 베트남 정부의 합법적 폭력의 독점이 인민의 저항을 주저하게 만들만큼 위협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하노이 인근 흥옌(Hung Yen) 성, 반장(Van Giang) 지역의 에코파크(Eco Park) 신거주지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 하노이 시내 타이하(Thai Ha) 천주교회 토지 수용의 사례처럼 정부가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경우가 더 일반적일 것이다

이처럼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축적된 불만이 저항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베트남 정부는 무엇보다 비판적 언론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비판적인 블로거 매념(Me Nam)의 구속,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검열과 삭제<sup>10)</sup>, ‘룩르영47’(Luc Luong, 力量 47)이라는 인터넷 보안부대의 창설 등 정부는 사회적 불만의 확산과 반체제적 정보의 차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응우옌푸쫑 총비서는 젊은이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이념적 무장해제가 이런 불만을 확산시킨다고 공공연히 비판하였다(VnExpress 11 Dec. 2017). 하지만 정보화와 개방이 상당히 진척된 베트남 사회에서 이런 식의 동원과 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개혁개방정책 이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베트남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인민의 불만을 감소시키고 정책에 대한 순응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현재와 같은 위로부터의 이념적, 물리적 통제로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동의는 생활의 향상, 불평등의 감소, 그리고 자본주의적 일상애의 적응 등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강압보다는 헤게모니를 활용할 때 동의가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Burawoy 1979).

하지만 지금처럼, 빈부격차의 확대, 부패와 권력의 독점,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양산이 지속되는 한 진정한 의미의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경제적 변화를 위한 개발과 산업화가 환경, 건강,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한 동의 대신 불만의 축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17년 한 해에 이룬 수치상의 경제성장, 표면적인 정치안정, 대외관계에 대한 기민한 대응 등이 향후 얼마나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10) 베트남 정부는 2017년 상반기에만 유튜브에서 1,500여개, 페이스북에서 159개의 계정을 삭제하였다(김문성 2017b)



### 〈참고문헌〉

- 글로벌 마켓 리포트(Global Market Report). 2017. “美 트럼프의 TPP 탈퇴 서명에 대한 TPP 가입국 반응조사.” Kotra.
- 김문성. 2017a. “개발우선·환경뒤틀전은 ‘그만’…베트남, 12조원 철강공장 ‘제동.’” 『연합뉴스』. 4월 18일.
- 김문성. 2017b. “베트남, 1만명 규모 사이버전 부대 운영…인터넷 감시 강화.” 『연합뉴스』. 12월 27일.
- 김보협. 2017. “한국-베트남 정상회담……‘2020년 1천억불 교역 가속화’ 합의.” 『한겨레신문』. 11월 11일
- 김은희·한경준. 2016. “2017년 베트남 진출전략.” Kotra 하노이 무역관.
- 민영규. 2017. “베트남 민자도로 통행료 징수 중단한 사연은.” 『연합뉴스』. 12월 5일.
- 신선영. 2017a. “2018 베트남 최저임금.” 베트남 하노이 무역관.
- 신선영. 2017b. “RCEP, 베트남의 TPP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 연합뉴스. 2017. “한-베트남 첫 정상회담……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더욱 강화.” 『연합뉴스』. 7월 18일.
- 윤보나. 2016. “베트남, 국영기업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베트남 호치민 무역관.
- 윤보나. 2017. “베트남 총리, 트럼프와 만나 ‘통상’을 이야기하다.” 베트남 호치민 무역관.
- 윤지원. 2017. “중·베트남, 남중국해 공동개발 합의……갈등은 여전.” 『뉴스1』. 11월 13일.
- 이은미. 2017. “베트남 고령화 추세 진단 및 인구구조, 소비시장 변화 전망.” 『Trade Focus』 30: 1-15.

- 이주현. 2017. “2017 하반기 베트남 주요 경제 이슈.” 베트남 호치민 무역관.
- 이한우 · 채수홍. 2017. “베트남 2016: 정치, 경제, 대외관계의 현황과 전망.” 『동남아시아연구』 27(1): 163-191.
- 정선인. 2017. “한국의 대베트남 교역 및 투자구조 분석과 소비시장 진출방안에 대한 시사점.” 『산업경제분석』. KIET.
- 정재영. 2018. “독극물 해양 방류 1년…죽음만 남았다.” 『세계일보』. 1월 8일.
- 채수홍. 2017. “하노이 한인사회의 형성, 분화, 그리고 미래.” 『한국문화인류학』 50(3): 125-174.
- 현대경제연구원. 2017. “포스트 차이나의 선두주자 베트남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자.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통권 711호: 17-38.
- 홍인표. 2016. “미국과 싸워 이긴 베트남 첫 ‘친미 지도자’ 나올까.” 『경향신문』. 1월 13일.
- Albert, Eleanor. 2017. “The Evolution of US-Vietnam Tie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November 9.
- Asian Development Bank*. 2016.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6 Update: Meeting the Carbon Growth Challenge.”
- Asian Development Bank*. 2017.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7: Transcending the Middle-Income Challenge.”
- BBC Vietnamese*. 27 tháng 4 2017. “Uy vien Bo chinh tri nao o VN tung bi ky luat?” [베트남에서 어느 정치국 위원이 기율 되었나?].
- Burawoy, Michale. 1979. *Manufacturing Consent: Changes in the Labor Process under Monopoly Capital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apman, Nicholas. 2017. "Mechanisms of Vietnam's Multidirectional Foreign Policy." *Journal of Southeast Asian Affairs* 36(2): 31-69.
- Chor Foon Tang, Bee Wah Tan, Ilhan Ozturk. 2016. "Energy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in Vietnam."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54: 1506-1514.
- Coxhead, Ian. 2017. "Vietnam in 2016: Transition and Trepidation." *Asian Survey* 57(1): 157-164.
- Dun & Bradstreet. 2015. "Country Insight Report: Vietnam, December 2015."
- Fforde, Adam. 2016. "Vietnam: Economic Strategy and Economic Reality."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35(2): 3-30.
- Huong Le Thu. 2017. "Vietnam is a Promising Partner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Asia Pacific Bulletin* 387: 1-2.
- Kolko, Gabriel. 1997. *Vietnam: Anatomy of a Peace*. New York: Routledge.
- Koning, J., M. Crul, R. Wever and J. Brezet. 2015. "Sustainable consumption in Vietnam: an explorative study among the urban middle clas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9: 608-618.
- Minh Nga. 2017. "Vietnam's economy grows 6.8% in 2017, hitting 10 year high. *Dataspeaks* December 27.
- Nguyen Khac Vien and Huu Ngoc (eds.). 1998. *From Saigon to Ho Chi Minh City: A Path of 300 Years*. Ho Chi Minh City: The Gioi Publishers.
- Nguyen Canh Binh. 2013. "Buoc Phat trien cua Quoc hoi." [국회 발

- 전의 결음]. *Tuoi tre Cuoì tuan*. 16-6-2013.
- Nguyen Trung Kien. 2015. "Manufacturing Exports and Employment Generation in Vietnam." *Southeast Asian Journal of Economics* 3(2): 1-21.
- Pant, Harsh V. 2017. "The India-Vietnam Relationship: Beyond BraMos Connection." *The Diplomat*.
- Parameswaran, Prashanth. 2017. "What's Next for Japan-Vietnam Defense Ties?". *The Dipolomat*.
- Pincus, Jonathan. 2015. "Why Doesn't Vietnam Grow Faster?: State Fragmentation and the Limits of Vent for Surplus Growth." *Journal of Southeast Asian Economies* 32(1): 26-51.
- Thanhniên News*. 15 Nov. 2014. "Results of Parliamentary Confidence Vote on Vietnam's Top Leadership."
- Thayer, Carlyle A. 2016. "Vietnam's Strategy of 'Cooperating and Struggling with China over Maritime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Journal of Asian Security and International Affairs* 3(2): 200-220.
- Tuoi Tre News*. 21 Dec. 2017. "Vietnam Police Request Prosecution of Former Politburo Member for Economic Misconduct."
- VnExpress*. 8 Dec. 2017. "Vietnam Arrests Once-rising Political Star for Wrongdoings at State Energy Giant."
- VnExpress*. 11 Dec. 2017. "Communist Party Chief laments Political Apathy among 'A Segment' of Young Vietnamese."
- VnExpress*. 20 Dec. 2017. "Vietnam Forges Ahead with Prosecution of Most High-profile Casualty of Corruption Crackdown."
- World Bank*. 2017. "Taking Stock: An update on Vietnam's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Special Focus: Towards a

High-Quality Fiscal Consolidation.”

(2018. 1. 10. 투고, 2018. 1. 18. 심사, 2018. 2. 7. 게재확정)

<Abstract>

## Vietnam in 2017: The Situations and Prospects of Economics,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HAE Su H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Han Woo  
(Sogang University)

This article takes several approaches in explaining recent developments in Vietnam. First, it draws upon an array of sources that idealize Vietnam's embrace of capitalism and integration into the global market in order to sketch out its economy's progress in 2017. Second, it observes, evaluates, and diagnoses recent changes in the Vietnamese economy in the medium to long term by incorporating conflicting perspectives on Vietnam's performance as a capitalist country.

Third, this article traces the power shifts that have risen from internal struggles in the Communist Party over political and social issues. Fourth, it elaborates on the aforementioned impact that foreign relations have had on socio-political developments in Vietnam, as well as the government's response. In so doing, it also attempts to

evaluate, however briefly, the significance of the 25th anniversary of South Korea-Vietnam relations. Finally, it examines the public's reaction to the post-reform transitions in light of recent sociocultural changes.

2017 was a memorable year for Vietnam: a continuous march toward capitalism; the resulting expansion of the Vietnamese people's demands; political controversies and government control; the looming instability of United States-China relations and various attempts to address the situation. These events will inevitably replicate themselves in the future as the ostensibly socialist Vietnam adopts a capitalist model.

The problem is that it is unclear whether these experiences will continue with the consent of the people of socialist Vietnam or engender resistance. It is difficult to achieve meaningful consent in the status quo of worsening inequalities, widespread corruption, monopoly on power, and sustained use of unskilled low-wage workers. In other words, when concerns such as welfare,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re set aside in favor of economic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as they have been, discontent, rather than consent, will prevail. It is thus important to keep a watchful eye on the viability of the nominal economic growth, surface-level political stability, and strategic responses to foreign relations that took place in 2017.

**Key Words:** Vietnam 2017, Political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nternational Relations, Consent and Resistance, socialism, reform, economic growth, development

